

책문화 수준 상징하는 '정신의 명소'

교보문고, 그 울창한 책의 숲을 걷다



교보문고가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해 6월1일 매장확장 및 시설보수를 위해 휴점에 들어갔던 교보문고가 몇차례의 연기 끝에 지난달 30일 정식으로 재개장함으로써 꼭 1년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의 재개장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과 만난 교보문고는 종래 1천5백평이던 서점공간이 2천7백평으로 늘어나 단일서점으로는 세계최대의 공간을 자랑하게 됐으며, 순수서적진열공간만 해도 2천2백평이나 돼 15만종 1백50만권의 책을 전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설면에도 많은 공을 들여 서가나 색상, 조명과 환풍 등이 인체공학에 맞춰 개선돼 전체적으로 공간이 쾌적해졌는가 하면, 각 매장의 평면배치를 효율화해 동선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다.

독자들이 교보문고의 재개장을 반기는 것은, 그러나 이같은 규모의 확대나 시설개선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독자에 따라서는 새단장한 교보문고의 외양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것에 심리적으로 불편해 할 수도 있

겠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교보문고는 책을 팔고사는 단순한 영업의 공간을 넘어선다. 그것은, 우리의 책문화를 상징하는 '정신의 명所'로 다가서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책의 바다를 손쉽게 조망해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문화궁전'으로 다가선다.

교보문고는 또한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가장 울창한 책의 숲을 제공하는 영혼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그 책의 숲이 내뿜는 향기가 오래도록, 그리고 날이 더 짙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교보문고가 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문화적 공유물일 때 그같은 기대는 충족될 것이다.

①매장 전경. 조명과 소음 흡수 기능을 하는 천정의 유리봉들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②재개장일의 종로1가쪽 정문.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인파 속에서 책에 대한 독자들의 열기를 읽을 수 있다.

③종래 따로 한 방을 차지했던 외서코너도 탁 트인 평면공간의 한 곳에 자리했다.

④어린이와 함께 책을 고르는 한 주부. 미세 서가에 책표지가 보이도록 진열해놓아 눈으로 보고 직접 들춰보기 편하게 했다.

⑤6부대 편의시설인 레코드점과 스낵바.

⑦교보문고가 자체개발한 바코드에 의해 책의 판매현황이 바로바로 컴퓨터로 처리된다. 계산대 앞에 선 노부부의 모습이 친근하다.

⑧컴퓨터 전시판매장. 책의 숲속에 끼어든 불청객 같지만 젊은 독자들의 발길이 가장 잦은 곳이다.

사진/김홍진

